



손흥민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 토트넘 구단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1군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중이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유로파리그 경기에는 변화 있는 스쿼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런던 | AP뉴시스

■통신헌 리포트

토트넘 손흥민 컴백 임박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선 3일(한국시간) 토트넘-에스턴빌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 11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다. 손흥민(23)이 부상의 여파로 결장했지만, 토트넘은 홈팬들 앞에서 무사 템블레~텔레 알리~헤리 케인의 연속 골로 3-1 승리를 거두고 5위로 올라섰다.

●**손흥민 부상 원래 임박…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 고조**
9월말 맨체스터시티전에서 발을 다친 손흥민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현재 1군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중이며, 6일 안더레흐트(벨기에)와의 2015~2016시즌 유로파리그 연맹(UEFA) 유로파리그 홈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턴빌라전 직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유로파리그 경기에는 오늘과 다른 경기 운영과 변화 있는 스쿼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식 기자회견 후 스포츠동아와 잠시 따로 만난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100%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경기는 이르지만, 다음 경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기의 에스턴빌라, 레미 가르드 감독 영입**
현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에스턴빌라는 시즌 초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팀 셔우드 감독을 10개월 만에 경질했다. 그 대신 전 올림픽코치 리옹(프랑스) 사령탑 레미 가르드를 신임 감독으로 임명했다. 가르드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에스턴빌라 같은 명성 있는 구단의 감독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다. 물론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에스턴빌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화이트하트레인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가르드는 에스턴빌라의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인해 많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보였고, 경기 종료에 앞서 자리를 떴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상무여자축구단, 경북 문경에 전용숙소 마련
대한축구협회는 3일 “상무여자축구단의 전용숙소가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오규상 여자축구연맹 회장, 고명현 국군체육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숙소가 위치한 경북 문경시 호계면에서 2일 준공식(사진)이 열렸다”고 밝혔다. 상무여자축구단 숙소 건립은 대한축구협회의 노력과 정부 관련 부처의 협조로 이뤄졌다. 여자축구 활성화 차원에서 2002한일월드컵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해 그동안 상무여자축구단의 숙소 임대비용을 지원했던 대한축구협회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내 전용숙소 건립을 지원했다. 2007년 창단해 WK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상무여자축구단에는 한국여자축구 최초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 가입자인 권하늘(중사)과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우승 주역인 이정은(하사) 등이 소속돼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박태하·하태균 “내년 또 한 번 큰 일 낸다”

사커 토크

중국 옌볜FC 슈퍼리그 승격의 두 주인공 박태하 감독 “갑자기 우승은 당연한 결과”
득점왕 하태균 “잇고 있던 골맛 다시 느껴”

2015년 중국프로축구 갑(甲·2부)리그는 옌볜FC 전하였다. 17승10무3패(승점 61)로 정상에 섰다. 16년 만의 슈퍼리그(1부) 승격은 당연지사. 올해로 창단 50돌을 맞이했지만 가장 유력했던 을(乙·3부)리그 강등 후보, 그것도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변방의 팀이 거둔 엄청난 성과에 중국 전역이 들썩었다. ‘축구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도 보고를 받고, 인민일보·신화통신·CCTV 등 중앙매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퍼부었다. 그 중심에 박태하(47) 감독이 있다. 사령탑 첫 시즌에 확실한 성과를 낸 그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과 중국 내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치고 2년 계약연장에 합의했다. 중국축구협회는 3일 박 감독에게 갑리그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여했다. 그런 박 감독이 항상 언급하는 한 선수가 있다. 2007년 K리그 신인왕으로 수원삼성에서 뛰다 올해 초 단기입대를 거쳐 완전 이적한 하태균(28)이다. 국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하태균은 박 감독과 함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정규리그 30경기에서 26골로 득점왕과 팀 우승을 일구며 영웅이 됐다. 돌과의 전화 인터뷰를 대화체로 풀어봤다.

●**‘찰떡궁합’ 은사&애제자**
박태하(이하 박)=3부로 떨어질 뻔한 우리가 극적으로 2부에 잔류했을 때, 용병 수급이 너무 급했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하)태균이야. 의중을 물었을 때 주저 없이 ‘합계 하겠다’고 해줬잖아. 1부도 아닌, 2부 팀에 와준다니 너무 고마웠어.
하태균(이하 하)=저도 절실했어요. 변화가 필



옌볜FC는 중국 갑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부임 첫 해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박태하 감독(왼쪽)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갑리그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또 박 감독의 부름을 받은 하태균(오른쪽)은 30경기에서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영웅이 됐다. 스포츠동아DB

요했고요. 1부나 2부냐는 중요하지 않았죠.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많이 뛰다면… ‘네가 가능하다면 얼마든 뛰게 해준다’는 약속에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지도자마다 기준도 다르겠지만, 넌 가장 이상적인 스트라이커야. 볼을 거머쥔 줄 알고, 공간을 파고들고 중국축구에 잘 맞으리란 생각이 들었지. 언제인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상하이 선화전에서 헤트트릭을 하고, 올해 초 수원외의 스페인 전지훈련 때 치른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연습경기에서도 2골을 넣었잖아. 확신하고 널 뽑았어.
하=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출전시킨다’는 약속을 정말 지켜주실까란 의문은 들었어도(웃음).
박=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 과거처럼 패배의식에 다시 빠져들지 않을까 고민도 컸지. 초반 (원정) 3경기를 잘 버티면 10위권 진입도 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 발전속도가 엄청 났어. 내색은 안 했는데 급세 큰 폭도 가졌지.



옌볜FC는 중국 갑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부임 첫 해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박태하 감독(왼쪽)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갑리그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또 박 감독의 부름을 받은 하태균(오른쪽)은 30경기에서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영웅이 됐다. 스포츠동아DB

●**기본이 만든 위대한 역사**
하=2월 거제도 전지훈련부터 합류했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수원에 있을 땐 선수단 지원이 완벽했잖아요. 반면 여기는 다소 부족했고, 그래도 제가 선택한 곳이니, 다행히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박=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구단에 요구한 몇 가지가 있어. 의식주야. 가장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제때 용품이 나오고, 급여와 수당을 제때 주는 건 당연하지. 다행히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됐지. 기본이 뒷받침되면 선수단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
하=감독님이 제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것 아세요? 그런데 그게 더 부담이었죠. 공격수의 기본인 포인트로 잘 증명해야 하는데… 내심 초조했어요. 다행히 2경기 만에 첫 골이 터져 자신감으로 바뀌었지만.
박=동계훈련 때부터 널 데려온 판단이 옳았다고 느꼈어. 다만 잦은 부상은 걱정스러웠는데, 몸 관리와 자기관리가 철저한 걸 보고 성

공을 확신했어. 그라운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항상 고민하고, 거들먹거림도 없었고,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에 고마웠고, 사실 용병은 이방인인데, 태균이는 먼저 다가갔잖아. 하=신기할 정도로 부상 한 번 없었어요. 시즌 내내 몸이 가벼웠어요. 예전에는 제 스스로 어리석고 과도한 플레이로 다치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조차 없었으니, 그것도 이 팀, 감독님과 공합인가 봐요.

●또 다른 역사를 향해!

박=우리 팀 매력 포인트는 모든 걸 빨아들이 준비가 된 선수들의 순수함, 서로간의 조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야. 난 이 친구들을 최대한 슈퍼리그까지 데려갈 거야. 1년간 경쟁력을 키운 우리가 최고 무대의 상대와 맞붙을 때 결과가 너무 궁금해.
하=저도 공감해요. 팀이 정말 끈끈해요. 주변에선 우리 우승을 기적이라지만 끝세, 팀과 실력으로 일군 성과라고 봐요. 과거 중국 클럽과 몇 차례 경기를 한 기억을 떠올리면 못할 건 없어요.
박=시작은 밀바닥이었지만, 그간의 노력과 과정을 생각하면 (우승은) 당연한 결과겠지. 또 당연한 운명이고, 네가 득점왕에 오르고, 우승 삼페인을 터트리며 활짝 웃을 땐 나도 굉장히 흐트하더라.
하=프로선수로 우승 타이틀을 가진 이가 몇 일까요? 또 득점왕은요? 여기서 오랫동안 잇고 있던 골 맛도 다시 느껴졌어요. 그간 득점에 배가 많이 고팠어요. 예전에는 골에 대한 간절함이 달렸는데, 여기서 한 골 났으면 더 득점하고 싶고, 여기서 받은 무한한 사랑에 보답해야죠.
박=그래,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지시를 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잘할 테니. 또 한 번 큰 일 해보자고. 우린 충분히 자격이 있다. 잘 버티고, 위기를 이겨내고,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정리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민고 부르는 ‘대표팀 만형’ 곽태휘

8월 동아시아컵 빼곤 슈틸리케호 ‘개군’ 대표팀 수비 핵…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시ಗ상 불가피하게 합류할 수 없었던 8월 동아시아컵(중국 우한)을 빼고는 ‘개군’이다. 그만큼 사령탑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고,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2일 발표한 11월 A매치 2연전(12일 미얀마전·17일 라오스전) 엔트리의 최고참은 수비 라인의 핵 곽태휘(34·알 힐랄)다. 그는 이번 대표팀 막내인 손흥민(토트넘), 황의조(성남FC) 등 1992년생보다 무려 열한 살이나 많은 1981년생이다. 10월 A매치 2연전 때는 12세나 어린 권창훈(수원삼성·1993년생)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기도 했다.
곽태휘가 슈틸리케 감독의 첫 부름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었다. 슈틸리케 감독의 ‘한국 사령탑 데뷔

전’에서 든든히 수비라인을 지킨 그는 이후 올 1월 호주아시아컵과 3월, 6월, 9월, 10월 A매치 때마다 빠지지 않고 호출 받았다. 유일하게 합류하지 못한 것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각국 국가대표 차출 규정이 적용되지 못한 8월 동아시아컵이었다.
한동안 대표팀에서 ‘만형’ 노릇을 했던 차두리(35·FC서울)가 ‘태극마크 반납’ 의사를 밝힌 뒤 축구계는 대표팀 내에서 후배들을 다독이며 이끌어갈 수 있는 선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곽태휘는 보란 듯이 차두리의 빈자리를 메우며 대표팀의 ‘모범 선배’로 자리매김했다.
곽태휘가 코칭스태프의 절대적 신뢰와 함께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션의 특성상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표팀의 기둥 역할을 하는 그의 존재는 대표팀에는 큰 선물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수원삼성 올리는 수원구장의 횡포

또 구단 측과 협의 없이 독자 광고 유치

또 다른 ‘갑의 횡포’다. 수원삼성이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관리주체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비상식적 횡포로 K리그와 소속 구단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최근 수원 구단과 단 한번의 상의 절차 없이 경기장 내 전광판 하단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가 완료되면 재단 나름대로 광고영업을 통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밀바탕에 깔려있다. 당장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잔여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유치한 광고를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경기주관단체의 독점적 상업권리를 기본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04년에도

경기장 2층 난간광고를 독단적으로 설치해 영업하고, 올 상반기에도 사전 협의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홈서포터스석 2층 및 앞 전광판 하단에 광고를 유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원 구단은 타 경기장과 비교해 높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매점사용료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상식에서 어긋나는 광고영업행위를 했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이번에도 또 다시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면 K리그는 물론 수원 구단 자체의 스폰서십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을 비롯한 K리그 각 구단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독단적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도현 기자



곽태휘는 지난해 10월 10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첫 부름을 받은 이후 올 1월 호주아시아컵과 3월, 6월, 9월, 10월 A매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표팀에 합류했다. 스포츠동아DB